

기고

최인수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장



재난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3대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불난리 구경, 옆집싸움구경. 나하고 상관 없기 때문에 그저 즐겁기만 한 거죠. 소나기로 초등학생에게 삼행시를 지으라고 했더니 한 어린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소 소방차가 급하게 출동한다. 나, 나는 신이었다. 기, 기절했다. 바로 우리집이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이웃이고 친척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각 소방서마다 대략 1팀 3명으로 5개팀을 편성, 2018. 8.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팀에는 소방공무원 1명, 일반직 건축직 공무원 1명, 안전관리분야 자격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 일반시민 1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의 방치해오던 건축물 불법개조, 증축을 비롯해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피난통로상 장애물 방치, 비상구

폐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은 조사반 팀 구성이 어떤 대상을 눈감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이러한 취약요인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재산과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내 주변에는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 지 수시로 살펴보고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전기를 예들들어 보겠습니다. 안전기가 자주 off 된다든지,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발생한다든지, 전선이 노후되었거나 규격전선이 아니거나 전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문어발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전기업자를 불러서 정비를 해야합니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벨설비, 피난기구 등은 항상 정상작동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인리히의 1:29:300, 일명 300의 법칙은 1건의 사고가 발생하려면 29건의 사고가 날 뻔한 일과 300건의 거의 느끼지 못한 사고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아야 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 점을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사고는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 순간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社說

커피음료 학내 판매 안 된다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등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피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 통보 등 행

정절차를 정비했다. 그간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초중고 학내 판매는 진작 금지했어야 마땅했다. 성장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 건강에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건강을 생각하는 시러 깊은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을 국가 미래의 동량이기 때문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 습관화 해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성묘객의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초 작업 중이던 예초기 칼날이 빠지는 등 사용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칼날이 빠르게 회전하는 예초기는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지 않으면 사용 중 사고가 나기 쉬운 물건이다. 예초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안경,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 시작 전에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차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예초기 사용전 칼날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점검하고 예초기를 작동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에 잔물이나 나뭇가지를 확인하여 돌·나무가 튀거나 칼날이 부러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보안경, 다리 보호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벌초 중 벌의 쓰임을 피

하려면 화려한 색이나 원색 계열의 옷은 공격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입지 않는다. 또한 갑자기 나타날지도 모르는 뱀에 대비하여 안전화·등산화 착용하는 것이 좋다. 벌초를 하다가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10m이상 떨어진 곳으로 빨리 도망쳐야 한다. 셋째 벌은 밤새에 민감하므로 또한 달콤한 음료·꿀을 주변에 두거나 향수·화장품을 사용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넷째 예초기 사용시 반경 15M 이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야외활동시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발열성질환 감염에 주의하며 소매와 비자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각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소음기준 준수 배려하는 집회문화 조성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매주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 나가 보면 지나가는 시민들은 집회 참가자의 구호에 귀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 뿐 집회 참가자들이 목 놓아 외치는 주장은 그저 소음으로 간주돼 안쓰러움을 안길 때가 많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시기에는 시민들에게 더욱 큰 짜증으로 다가와 사무실, 주택가 등에서 소음으로 고통을 겪을 수가 없다는 112 신고가 빗발치기도 하는 현실이다.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dB, 야간 60dB,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소음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침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에 동조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저 시끄러운 소음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 등을 이용, 소음 등을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 없이 피해를 인내하려는 일방적인 강요나 다름이 없다. 집회 현장에서의 소통은 단순히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아닌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 받을 것이라는 취회 측의 진정성이 있을 때 작은 소리라도 시민들은 귀를 기울이며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경찰은 집회 장소 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하는 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소음기준을 준수 할 때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고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광홍 / 나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趙 나라 조 趙魏困橫
魏 나라 이름 위
困 곤할 곤
橫 가로 횡
▶ 뜻: 조(趙)와 위(魏)는 횡(橫)에 곤(困)하니, 육군(六群) 때에 진(秦)나라를 섬기자 함을 횡(橫)이라 함.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elderly wome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ncludes logo for 'Korea's Happiness' and 'Korea's Happiness Foundation'.